

예배 및 모임안내

2019-23호 2019년 06월 09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1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성경 읽기 모임	매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구역 모임	월 1회(구역 별)	구역 별 결정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16	06. 23	06. 30
대 표 기 도	김영희 권사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성 경 봉 독	김영희 권사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헌 금 위 원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문정현 집사
안 내 위 원	김영희 권사	김영희 권사	김영희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대하25~36장, 민1~9장)
2. 성령강림주일 -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제직회 - 천교실 정리 후, 정기 제직회로 모입니다(5번 교실)
4. 졸업연주 - 장준화 형제(14일, 금) 오후 7시, 음대
5. 야외예배 - 23일(넷째 주일) 오전 11시 30분 Werder See에서 드립니다.
6. 나눔의 시간 - 황희순, 정용현 집사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김영희 권사, 우성민 형제(13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기도 모임과 각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2. 청년들의 진로를 위해서 - 입학, 졸업,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3. 김선태,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형가리) 사역을 위하여
4. 투병 중인 성도를 위해 - 김복자 권사, 이 현 형제의 치유를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예배 Gottesdienst **성령강림주일**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187장 **다같이**
- *성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135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188장 **다같이**
- 기 도 Gebet 김효종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삼상 17 : 31- 40(구 p437) 김효종 집사**
(1.Samuel 17:31-40)
- *찬 양 Lobelied 한민 성가대
- 설 교 Predigt **다윗을 통한 행복 누리기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189장 **다같이**
- 현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김영희 권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실

기도와 행동

“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창24:12)”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감을 찾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겼습니다.

딸은 아빠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잔디를 깎느라 고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아빠가 잔디를 다 깎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딸은 “아빠. 잔디 깎는 차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아빠와 약속한 후, 아빠를 위한 잔디 깎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절약해서 저축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모은 돈으로는 잔디를 깎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배달된 지역 신문 광고를 보다가 팔려고 내놓은 잔디 깎는 자동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모은 돈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엄마와 딸은 자기들의 눈을 의심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지의 요청, 기도와 행동을 병행하는 두 사람의 신실한 자세, 이것이 위대한 결과를 낳는 공식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응답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약속 365가지